

골프 코스계정의 자산성과 감가상각에 대한 연구

- 제주 H 골프장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preciation and the Nature of Asset in the Golf Course

- A Case of H Golf Country Club in Jeju -

김 제 동* · 김 동 옥** · 김 봉 현***

(Kim, Jae-Dong · Kim, Dong-Wuk · Kim, Bong-Hyun)

목 차

- I. 서론
- II. 골프장 관련 회계에 대한 고찰
- III. 골프 코스의 특성
- IV. 코스계정의 자산성과 감가상각
- V. 결론

I. 서 론

1980년에 71만명에 불과 했던 골프장 이용객수가 회원제 골프장의 급증 및 대중 골프장의 개장과 2000년의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 국내경기의 급속한 회복에 따른 골퍼들의 소득증가 등으로 2007년도 말에 처음으로 ‘골프장 이용객수 2,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사 가입 골프장을 비롯한, 전국에 산재한 6홀 규모 이상 대중골프장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 골프장 277개소(회원제 175개소, 대중 102개소)를 이용한 내장객은 모두 2천2백34만3천079명으로 2006년 250개소(대중 93개소, 회원제 157개소) 1천9백65만3천3백59명에 비해 2백68만9천720명이 늘어 전년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08). 또한 2004년말 현재, 세계 인구는 약 62억명으로 추정하고, 골프다이제스트는 그 중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석사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전임강사

0.94%인 5천 8백만명이 골프를 친다고 집계했다. 인구 대비 골프장이 많은 국가로는 스코틀랜드(9천3백79명당 1개 골프장), 뉴질랜드(1만3백74명), 호주(1만1천63명) 등이 꼽혔다. 미국은 인구 1만8천5백14명당 골프장이 하나 꼴이었다. 국토면적에 비해 골프장이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10평방마일 당 하나), 잉글랜드(27평방마일) 일본(59평방마일) 등의 순이었다. 인구가 1천만명 이상인 국가로 골프장이 없는 곳은 우크라이나, 수단, 예멘, 말리, 벨라루시 등이었다(골프다이제스트, 2005). 이러한 골프장 및 골프장 이용객 현황으로 미루어 보면, 골프는 외형적인 모습만으로도 더 이상 특수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는 대중스포츠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골프는 건강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운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골프 인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05).

2008년 현재, 이제는 한국의 골프장들은 스스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 세계의 골프장과 무한생존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국내의 골프장의 경쟁대상은 동남아시아 골프장과 중국지역의 골프장, 그리고 일본지역의 골프장들이 주 경쟁대상의 골프장이다. 국내의 골퍼들이 선호하는 골프장으로 가격 및 기후조건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의 골프장들은 골프장 사업이 비합리적인 회계제도와 세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골프장 협회를 비롯한 전국 골프장들의 세계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중이다. 골프 요금에 포함되는 특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제주지역은 제외). 이 때문에 국내의 골퍼들이 부담하는 입장료가 올라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개선을 위하여 각 골프장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세법은 적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통하여 공정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법간에는 동일한 회계대상인 감가상각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양 회계가 지향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양 회계를 조정하는 것이 기업의 회계담당자나 능률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세법은 과세소득의 계산편의를 위해 감가상각 방법을 강제규정하고 효과적인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감가상각의 변수 즉 자산별, 용도별, 구조별, 내용연수와 상각율, 대상자산의 분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상각비 계산상의 처리방법, 취득원가의 계산방법 그리고 세법상의 감가상각에 대한 강제규정에 의해 대부분의 기업은 비합리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 많은 불

편함을 강요당하고 세무조정 등으로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곽이기, 1992). 따라서 각종 소득과 정상적인 사업행위에 과세되는 원칙이 적용되고 평등한 조세부담으로 국민의 납세의 무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설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각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영업을 위한 코스공사를 실시하고 토지와 구분하여 코스 공사비를 별도의 코스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토지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 불공제 및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여 세금납부에 따른 골프장의 현금유출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골프장의 영업을 위한 기본영업자산인 코스조성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또 실제적인 코스관리를 수행하는 골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잔디의 속성과 관리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유형자산임을 파악하고 이의 감가상각을 통한 골프장의 경영수지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인정이 될 수 있는 논거를 보이고자 한다. 감가상각의 효과로는 고정자산을 유동화하며 기간손익과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는데 있으며 고정자산을 유동화한 효과는 기업의 자기금융의 한 조달방법이 되는 것이며 또한 투하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가상각을 경제발전의 자금화로 이용하는 대신에 기간이익의 조정수단으로 이용하여 감가상각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규열, 1999).

결국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은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골프장 조성공사 시에 코스계정으로 분류되는 잔디관련 공사 등이 회계처리에서 유형자산의 코스라는 계정으로 이미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으로서 코스계정의 대상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코스계정의 대상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것이 회계처리원칙 중,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세제에서는 코스관련 공사금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있다. 이는 코스공사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되지 않는 영구적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코스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제반비용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자산의 골프 코스는 매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 비료 및 농약, 해충방제, 잡초제거, 관수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업용 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영업불가 자산상태로 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코스계정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어

야하는 유형자산임을 구체적인 골프장의 코스 특성을 파악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II. 골프장 관련 회계에 대한 고찰

2.1. 골프장 자산에 대한 고찰

골프장의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골프장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자산 계정과목은 토지, 코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임목,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재무제표에 비해 특이한 성격의 코스계정을 토지계정과 연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1. 토지계정

토지는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취득한 체육시설용지, 유원지, 대지, 잡종지, 임야, 농경지, 하천과 구거 등을 말한다.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보유한다. 골프장의 유형자산중에서 토지는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 일반적인 토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지적법 제5조에 의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28지목의 토지를 말하며, 이때의 토지의 본래의 의미는 국토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연상태의 토지는 개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인 필지를 등록 단위로 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상 토지계정에는 지목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한다. (지적법 제5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2001. 1.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1. 1. 26. 개정)).

토지는 다른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영업순환기간 이상 사용되는 내구자산으로서

사용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또는 정상적인 영업순환기간 이상 사용되는 내구자산이나,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상각대상자산은 아니다(삼일회계법인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해설, 2006). 또한 유형자산 과목 중에서 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추가하여 재무제표에 주식으로 기재한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2.1.2. 코스계정

코스는 티그라운드, 웨어웨이, 러프, 헤저드(폰드와 벙커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성되는 골프 코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조사용역비, 기반조성비, 토공사비 등의 직접공사비와 기타 간접공사비 등의 투자액으로 한다. 다만 코스의 일부 구성항목 중 그 지출액이 중요하고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골프장의 대차대조표 상에 나타나 있는 유형자산 중, 코스계정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골프 플레이를 위한 코스 관련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골프장 사업을 위한 골프 코스를 설계하고 코스조성 공사를 하는데 대한골프협회에서 규정한 골프 코스는 다음의 각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대한골프협회). 즉, Teeing ground, Fairway, fairway bunker, Rough, Water hazard, Green bunker, Green, Hole-cup, 카트도로, 조경수, Pond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2.2. 감가상각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세법 개정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변함이 없다. 감가상각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관계없이 정책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정책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감가상각제도의 한 요소인 자산별 내용연수의 결정에 관한 것도 각 자산의 실제 내용연수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상의 자산별 내용연수는 실제의 내용연수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이 임의적으로 정해진 흔적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ACRS(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자산별 경제적 내용연수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세법에 반영하였다. 우리나라 기업회계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산별 내용연수는 세법상 내용연수표나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내용

연수표를 따르고 있다. 두 가지 내용연수표가 우리나라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두 가지 자료 모두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상 내용연수표는 일본을 모방하였고, 한국감정원의 내용연수표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간한 자산별 내용연수 조사결과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기업의 감가상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직관에만 의존한 감가상각 정책은 설득력이 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산별 내용연수에 대한 정책은 기업에 주는 세부담 효과나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과학적 정책수립은 설득력이 약하고 일단 확정이 되면 경제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료의 확보 없이 이루어진 비과학적 감가상각 수립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최규열, 1999). 감가상각 대상자산임에도 감가상각을 실시한 경우와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기업의 경영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자산의 과대계상 혹은 과소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감가상각 대상자산임에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업연도의 이익은 크게 과대계상 될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법인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회사의 현금유출을 수반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야 할 자산을 감가상각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업연도의 이익은 과소계상되고 또한 유형자산이 과소계상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법인세 납부금액이 적어져서 회사의 현금유출은 작아 질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2.3. 코스계정 공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코스관련 부가가치세문제는 선행연구(김길훈·강호년·김봉현, 2007)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개념을 살펴보면 조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곧 이용할 수 있도록)품을 들여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

본적 지출의 의미는 토지를(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곧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출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이러한 의미로만 본다면 골프장 사업의 경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를 골프 코스 부지에 맞게 곧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출”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김길훈·강호년·김봉현, 2007).

코스조성공사는 골프 플레이를 위한 코스공사이며 잔디의 생육조건을 좋게 하기위한 코스의 하부 잔디 보조공사이고 골프 플레이를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이 포함된 영업적인 공사임을 감안한다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의미보다 영업의 상태에 따라 또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계속해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바꾸고 관리해야 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고객을 지향하는 골프장으로서 고객의 욕구를 찾아내어 이에 맞추는 적극적인 영업을 하는 세계의 유수의 골프장의 경우는 더욱 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시기에 적절하게 변화하는 골프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내셔널 오거스타의 경우, 매년 코스를 변경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골프장에서도 고객욕구의 변화에 의하여 혹은 자연적인 조건 변화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로 분류되는 자산의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갖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은 공제 되어야 한다. 골프장 코스조성을 위한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닐 경우 당해 지출은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계산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으로 규정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되어 세법상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용인 받고 있으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된다(김길훈·강호년·김봉현,2007).

골프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는 토지와 구분되는 골프 코스의 취득원가이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김길훈·강호년·김봉현, 2007).

골프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호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면 당해 공사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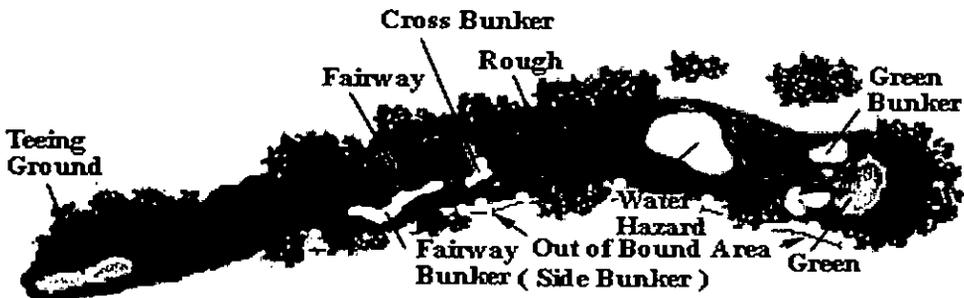
입세액”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겠다(김길훈·강호년·김봉현, 2007).

정부에서도 골프장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요금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회계처리기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일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계정처리 등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개선되어서 골프장의 경쟁력강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사업내용에 맞는 세무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골프장 사업회계기준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II. 골프 코스의 특성

3.1. 골프장 코스 구성요소 및 현황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형 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 코스를 설계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조형공사 및 병커공사, 배수시설공사, 조경공사, 잔디 식재공사 등을 마치고 골프 코스를 조성하고 클럽하우스 및 그늘집, 관리동, 창고 등의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골프 코스는 Teeing ground 및 Fairway, Fairway bunker, Cross bunker, Water hazard, Green, Green bunker, Rough, OB(Out of bound)지역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여기에서 시행되는 조형공사 및 병커공사, 배수시설공사, 기타공사 등은 모두 골프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이며 많은 부분이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의 코스를 각각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위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골프장 코스의 주요구성 현황

3.2. 골프장 코스공사관련 계정과목 현황

제주지역 H, 36홀 골프장 코스조성공사를 하고 난 이후, 골프장관련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유형자산의 계정과목별 자료를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토지계정과 코스 계정은 명칭은 구분하고 있으나 성격상 토지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액 등을 불공제 받은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골프장의 총자산 중, 토지와 코스로 분류된 금액이 전체 유형자산금액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스조경용인 입목까지를 포함한다면 55.6%를 구성하고 있으며 코스내의 폰드 등의 구축물 206억원을 포함할 경우 74.2%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장 기반시설을 설치한 공사금액 중, 약 50%가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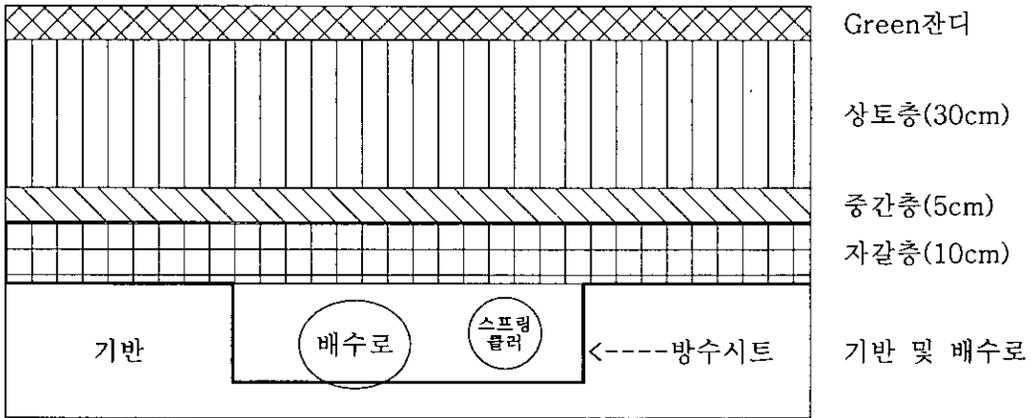
<표 1> 제주지역 H 골프장의 유형자산 계정과목 현황표

[단위:원]

계정과목	금 액		비 고
1. 토지		15,570,560,323	14.15%
2. 코스		37,820,642,940	34.37%
3. 입목		7,619,103,814	6.92%
4.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22,153,522,178 1,076,435,605	21,077,086,573	19.15%
5.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26,855,968,232 6,251,079,458	20,604,888,774	18.72%
6.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1,543,125,839 1,211,399,509	331,726,330	0.30%
7.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498,393,984 232,104,871	266,289,113	0.24%
8. 건설중인자산		66,000,000	0.06%
9. 공기구비품 감가상각누계액	3,531,992,280 1,654,486,778	1,877,505,502	1.70%
10. 코스장비 감가상각누계액	4,042,954,395 2,956,296,275	1,086,658,120	0.99%
11. 선박 감가상각누계액	4,425,415,949 734,619,046	3,690,796,903	3.35%
유형자산 계		110,011,258,392	100%

3.2.1. 그린(Green) 공사

골프장 공사에서 Green 설계 단면도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Green 조성공사는 조형 설계에 따라 기반 토지를 조형공사를 실시하고 Green 하부 전체 면적에 방수가 되는 시트를 깔고 배수로 부분에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그 위에 굵은 자갈을 깔고 다시 잔자갈, 그리고 그 위 중간층에 모래와 흙을 배합율이 다소 다른 혼합토를 5cm 포설하고 그 위에 다시 혼합토를 상토층에 30cm를 포설하고 잔디씨앗을 뿌려 발아하면 이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발아 후, 관리를 위하여 관수시설 즉, 스프링클러를 지하에 묻어 물을 주는 급수관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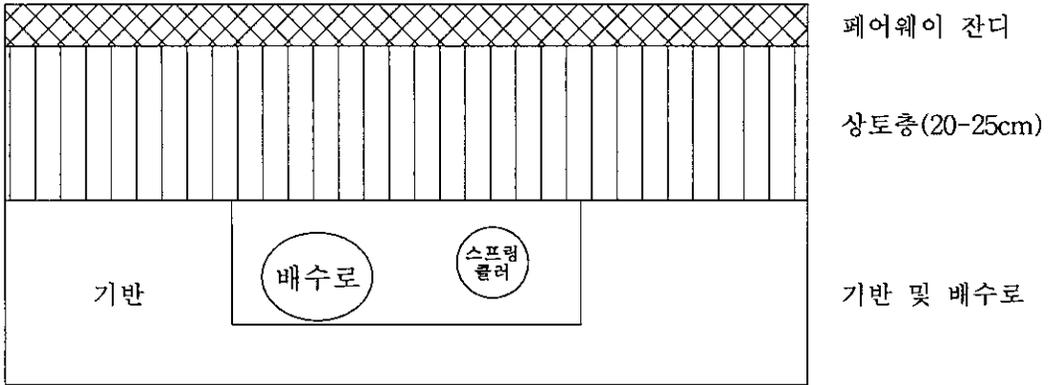
[그림 2] 그린(GREEN) 시공 단면도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코스계정으로 분류하는 Green 공사는 실제로 잔디를 키우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공사이며 이 공사는 하부구조물의 변화에 따라 배수로의 기능 및 혼합토의 성질변화 등에 맞춰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상부에 보이는 부분만을 보고 이 전체를 토지 성격으로 보아 코스로 분류한다고 하면 하부공사에 투하되고 영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3.2.2. 페어웨이(Fairway) 공사

골프장의 공사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시설되는 페어웨이 설계 단면도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페어웨이 조성공사도 조형설계에 따라 기반토지에 먼저 조형공사를 실시하고 페어웨이 하부전체면적에 설계 시방서대로 배수로 부분에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급수시설인 스프링클러 공사를 실시하고 그 위에 모래와 흙을 혼합한 혼합토를 20-25cm 포설하고 잔디씨앗을 뿌려 발아하면 이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림 3> 페어웨이(FAIRWAY) 시공 단면도

Green과 마찬가지로 Fairway 잔디에 있어서도 배수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잔디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물 빠짐이 나빠질 경우는 잔디의 생육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 이의 개선을 필요로 하게 한다. 이 경우 필수적으로 배수공사를 하는 데 배수가 안 되는 지점에서 배수로가 있는 곳 까지 파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배수관로 공사는 매년 부분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장마기를 거치면서 막히거나 장애가 발생한 지점과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잔디뿌리의 침투 등으로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 골프장에서는 매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3. 골프 코스의 관리

3.3.1. 코스의 잔디관리

골프장의 유형자산 중에 잔디는 코스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잔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의 감소가 나타나는 자산인지 혹은 나타나

자 앓는 자산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잔디란 지면을 덮고 있는 수많은 초본류의 지피식물(ground cover plant) 중에 짧은 예초에 견디는 능력이 높은 것과 질감이 좋은 초종을 일컫는다. 잔디는 화본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종으로 약 600속(genus) 7,500종(species)이 있으나 이 중 30여종만이 실제 잔디로 이용되고 있다. 각 종들은 적응 지역이 특이하다. 코스를 조성하고 최고수준의 잔디 품질을 얻기 위해서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적합한 초종의 선택이다. 잔디는 크게 한국형 잔디와 양잔디로 대별되고 또 Green용 잔디와 페어웨이 잔디로 구분된다. Green잔디는 예고가 짧아 Green위로 골프공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페어웨이는 좀 더 길게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성질 및 관리의 특성이 아래의 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잔디의 시각적 품질 6요소에서 구분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각각의 초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별로 또 용도에 맞게 초종별로 구분하여 각 골프장에서 식재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관리하는 잔디는 식물이며 이는 기온 및 습도, 수분상태, 양분상태, 계절에 따라 병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잔디에 나타나는 병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잔디관리는 실제 병해의 관리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관리업무 중의 하나이다. 잔디관리 및 유지에 있어서 해충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골프장의 잔디해충에 대한 방제 필요성에 의해 잔디 해충의 생태나 방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골프 코스 내에서 잔디와 같이 자라고 있는 주요 잡초 종류는 바랭이 및 새포아풀, 파대가리, 토끼풀, 매듭풀, 썩, 망초, 쇠뜨기 등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방제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코스 내에 번져 잔디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코스의 미관을 해치게 된다(한국잔디연구소). 또한 봄철로 접어들면서 기온과 지온의 상승으로 얼어붙었던 골프 코스가 녹고, 잔디 및 수목도 휴면에서 깨어 새싹을 내밀고 대사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시기의 잔디 및 수목은 생리적으로 연약하여 각종 이상 현상 및 병해충의 피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 시기의 관리가 1년의 코스 상태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한국잔디연구소). 식물이 종자로부터 발아해서 영양생장 및 생식생장을 하여 꽃 열매 및 종자를 다시 맺기 까지 생육과정에는 여러 종류의 영양요소가 필요하다. 식물이 생육하는 과정에는 40여 종류의 영양요소가 관여하고 있는데 이중 식물에 없어서는 안 될 원소를 필수 영양소라고 한다. 잔디식물체의 구성성분은 80% 이상이 수분이며 나머지 물질은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 화합물은 17종의 필수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김경남, 2006).

양질의 코스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잔디식재 층의 지반특성 및 토양분석, 잔디초종, 관리체계수준, 예지물 관리방법, 비료유형 그리고 시비방법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김경남, 2006). 이처럼 잔디를 키우는 바탕이 되고 있는 코스는 잔디의 생육에 맞게 토질을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토양의 상태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잔디 씨앗만을 파종하여 잔디를 키우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잔디로 성장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만 추가적으로 투하될 것이다. 또한 토양의 성분조사를 통하여 비료성분의 적정량이 포함되어 잔디의 생육에 적합한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적절한 시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잔디관리는 각 계절별로 기후에 따라서 관리해야 하는 시비 및 병해충방제, 갱신작업 등의 수많은 작업이 연중무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잔디의 상태를 좋게 하기위한 활동으로서 골프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잔디의 특성으로 인하여 코스에는 관리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4계절 내내 관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코스자산을 토지와 동일한 감가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잔디의 특성을 잘못 이해 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토지와는 분명하게 다른 관리가 필요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다.

3.3.2. 코스관리 운영인력

(가) 코스관리 인력현황

코스라는 유형자산이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업자산임을 나타내는 근거는 코스관리 인원에서도 알 수 있다. 36홀 골프장의 경우 일용직을 포함하여 41명에서 67명 정도의 관리인원이 연중 관리인원으로 투입되어 관리를 하고 있다. 일용직도 잔디생육이 정지되는 동절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상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코스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관리 전담인력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코스계정은 불변적인 성격의 토지가 아니라 연중 관리되고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감가상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자산임을 알 수 있다.

(나) 코스관리사 인증시험

골프장의 코스관리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코스관리사 인증시험과목 및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코스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주요과목은 잔디학 및 잡초학, 잔디병학, 잔디해충학, 수목관리학, 비료학, 토양학, 농약안전사용, 골프장 환경관련 법규등 코스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과목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주요과목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난 이후라야 정상적인 코스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골프장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과목이다. 이것은 코스라는 자산이 토지의 성격과는 다른 전문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있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코스관리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골프 플레이가 가능한 잔디가 연중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3.3.3. 코스관리 장비

코스라는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골프장에서는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코스라는 자산, 즉 상품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다. 여기에는 Green관리장비 및 Tee관리장비, Fairway 및 Rough관리장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 그린(Green)관리장비

골프장에서의 Green은 코스 중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골프경기에서도 Green의 상태에 따라 경기력이 좌우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경기요소이기도 한다. 잘 정돈된 Green은 골프장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골프장에서는 이러한 Green을 관리하기 위해서 13-24대의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티그라운드(Teeing ground)관리 장비

골프장에서의 Teeing ground는 골프경기를 시작하는 홀의 첫 부분이며 이곳의 관리는 Green과는 다른 관리형태를 갖는데 이는 깎는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 Green보다는 좀 더 길게 깎는 것이 일반적이다. H 골프장은 4-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다) 페어웨이(Fairway) 및 러프(Rough)관리 장비

코스의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페어웨이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골프장에서는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깎는 장비인 예초장비 모래를 배토하는 장비, 병해충예방 시약하는 장비, 롤러 등 20-35대의 많은 장비로 페어웨이를 관리하고 있다.

코스관리는 용도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시기에 맞는 필요한 관리작업을 수행해

야한다. 코스관리 장비를 보유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스는 관리되어야 하는 자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절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 자산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IV. 코스계정의 자산성과 감가상각

4.1. 코스계정의 감가상각의 문제점

토지라고 한다면 본래 의미의 땅을 나타내며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상태의 토지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는 용도가 결정되는데 체육시설용지, 대지, 잡종지, 임야, 하천과 구거 등으로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진다. 골프장을 건설하고 나서 대부분의 토지는 지목을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하게 된다. 골프장 경영협회의 회계처리 지침 제1호에서도 토지와 코스의 구분을 명확히 해놓고 있다. 이는 토지는 토지로서 그리고 코스는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자산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 사업을 하기위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와 그 토지를 영업기반으로 조성하는 공사 등을 포함한 코스는 토지와는 그 성격자체를 확연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골프장 경영협회의 회계처리지침에서 코스로 구분하는 계정은 잔디의 생육조건 변화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수시설의 낙후, 잔디의 노후화 등에 따라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코스자산은 상각 대상자산으로 그 성격을 다시 정의하고 별도로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골프장은 골프 코스라는 상품을 이용고객에게 팔고 있는 것이며 코스라고 하는 상품을 토지성격의 자산으로 규정하여 비상각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코스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코스계정 유형자산은 영업을 하기위한 기반시설 공사인 점, 또한 고객이 실제 골프 플레이를 하면서 사용하는 자산임을 감안한다면 본래의 분류 목적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진다. 이는 골프장이라 함은 코스가 기본 영업자산이고, 코스자산은 매년 코스의 상태에 따라서 레이어아웃을 변경하고 잔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관리하고 특히 잔디의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수시설공사를 위하여 매년 코스 하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의하여 병커의 위치 및 조경수의 식재 위치를 변경하고 폰트를 증설하는 등의 코스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공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연인원 15,000명에서 30,000명 정도의 코스관리인원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토지개념으로 본다면 이러한 관리가 필요치 않은 영구적인 상태로의 자산이어야 함에도 코스자산은 매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업용 자산인 것이다. 골프장 영업을 하기위한 영업자산인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조형공사 및 배수공사, 스프링클러 공사, 잔디식재공사 등은 토지의 성격으로 분류하여 비상각 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영업용 자산인 상각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회계적인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골프장의 코스공사는 단 한 번의 공사로서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지는 공사라기보다는 매년 골프 코스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기 위한 변경공사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코스관리를 위한 관리인원이 상주하면서 병해 및 해충, 잡초제거, 시비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코스의 공사는 골프 코스를 조성하는 공사이며 골프 코스 내에 골프플레이어를 위한 잔디를 식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배수 구조물공사 스프링클러공사 조형공사 토공사 등을 시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코스의 잔디는 한번 식재공사를 함으로서 그 가치가 변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병해 및 해충, 시비, 잡초제거 등의 관리 및 유지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스계정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코스계정 금액도 내용연수가 주어지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을 매년 실시하여야 수익비용대응의 회계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4.1.1. 코스계정자산의 내용연수 추정

코스자산을 감가상각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코스계정 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을 추정해야함을 의미한다. 잔디는 자연상태에서는 번식과 생육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도 가뭄이나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상태에서는 소멸과 재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골프장 사업을 지속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코스관리의 주요업무가 수행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18홀 골프장 기준 평균적으로 1년 내장객을 90,000명으로 가정할 경우, 잔디가 살아서 골프플레이가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기간은 1-2년에 불과 할 것이다. 골프 코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지라도 약 10년여에 걸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캐슬렉스골프장(1995년open), 중문골프장(1989년 open), 오라골프장(1979년open)의 경우 잡초(세포아)의 발아 및 Green잔디의 페어웨이 침범에 의한 코스 개선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해비치골프장의 경우도 코스개선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실제로 캐슬렉스 골프장을 기준으로 하면 1995년에 OPEN하여 2007년 개보수작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오라골프장의 경우, 1979년에 OPEN하였으나 28년으로 추정할 수 있고 해비치C.C의 경우는 1999년 OPEN하여 2008년 코스개선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약9년 정도의 내용연수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9홀의 개선공사를 위한 소요금액은 약 47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36홀의 개선공사일 경우 188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의 개선은 잔디의 생육이 나빠진다는 것에 기인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잔디가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골프플레이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규모의 공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잔디상태를 좋게 하기 위한 코스의 하부구조물 공사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재 투하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정해진 일정 기간의 확실적인 내용연수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20년으로 보고 각 골프장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25%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코스자산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길은 열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39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 유형자산의 비중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을 신설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공회사의 경우에는 항공기를, 해운회사의 경우는 선박을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반면에 기계장치의 비중이 크지 않은 서비스 업종 등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를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4.2. 코스계정자산의 감가상각 효과

코스계정 자산의 감가상각 효과는 코스계정자산의 연도별 감가상각비 금액 만큼의 비용 인정에 따른 세액 절감효과로 인하여 골프장에 현금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무적인 자금조달 효과가 발생한다. <표 2>에서와 같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된 감가상각비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홀수가 많고 코스자산이 많을수록 세액절감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해비치 골프장인 경우, 472백만원 정도의 세액절감효과가 예상되며 평균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연간 약280백만원 예상된다.

<표 2> 코스계정금액 감가상각에 따른 세액절감 효과

[단위:백만원]

골프장	홀수	코스계정자산(2007)	감가상각비/년	세액절감(25%)
해비치	36홀	37,820	1,891	472
핀코스	36홀	20,892	1,044	261
라 온	27홀	21,639	1,081	270
남촌	18홀	18,317	915	228
수원	36홀	13,495	674	168
계		22,433	1,121	280

V. 결 론

현재의 코스계정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스시설 자체도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활동, 보완공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각대상 자산으로 변경함이 옳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코스계정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비상각 대상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골프장에서 코스로 분류되는 코스계정자산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있으며 취득

원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매입 부가가치세액의 불공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성격에 국한하여 불공제되는 원래의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코스계정자산은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인 토지의 성격에 가까운 자산이 아니라 잔디를 키우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며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코스자산에 대한 특성과 실제 자료를 근거하여 위에서 살펴 본 결과, 골프장에 대한 산업의 특성이 적용된 골프장에 만 해당되는 특수 기업회계기준이 필요하다. 즉, 일반적인 회계기준은 인정하되, 기업회계기준 전문 특수 분야의 회계기준에서 “32 ‘특수분야 회계기준’은 관계 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한국에 고유한 거래나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서 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된다”(한국회계기준원, 2007)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 분야의 회계처리 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으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골프장의 코스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인정되는 자산으로 보고,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매년 수익에 기여한 금액만큼을 비용화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기업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힘입어 경영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막대한 고정자산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감가상각 목적 내지는 기능이 자금의 내부조달 혹은 자기금융의 수단이 된다고 할 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하겠다(곽이기, 1992). 즉, 감가상각은 이미 투자된 자산에 대한 사후의 상각이며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다. 따라서 코스계정 자산의 감가상각은 이를 통하여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다른 계정의 비용들보다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회사는 이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한 회사의 재무구조의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골프장에서의 코스자산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감안한다면 골프장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한국회계기준원. (2007).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Institute · Korea Accounting Standard Board)
- 김길훈·강호년·김봉현. (2007). 제주지역 골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 미발표논문
- 삼일회계법인. (2006).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해설
- (사)한국골프장 경영협회. (2006). Korea Golf Course Business Association “골프장 세계 제반사항”
- (사)한국골프장 경영협회 (2003). Korea Golf Course Business Association 골프사업장 회계처리 지침1호
- 최규열. (1999). 감가상각처리에 관한 고찰 세무학논집 vol.12. No.1.
- 곽이기. (1992).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제도의 고찰 세무학논집 vol.5.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 대한골프협회. (2007). Korea Golf Association 자료실 골프규칙
- 한국잔디연구소 Korea Turfgrass Research Institute “잔디란”
- 한국잔디연구소 Korea Turfgrass Research Institute “관리정보”
- 한국회계기준원. (2007).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Institute · Korea Accounting Standard Board) 기업회계기준 전문
- Haevichi country club 코스 조성공사 원가자료